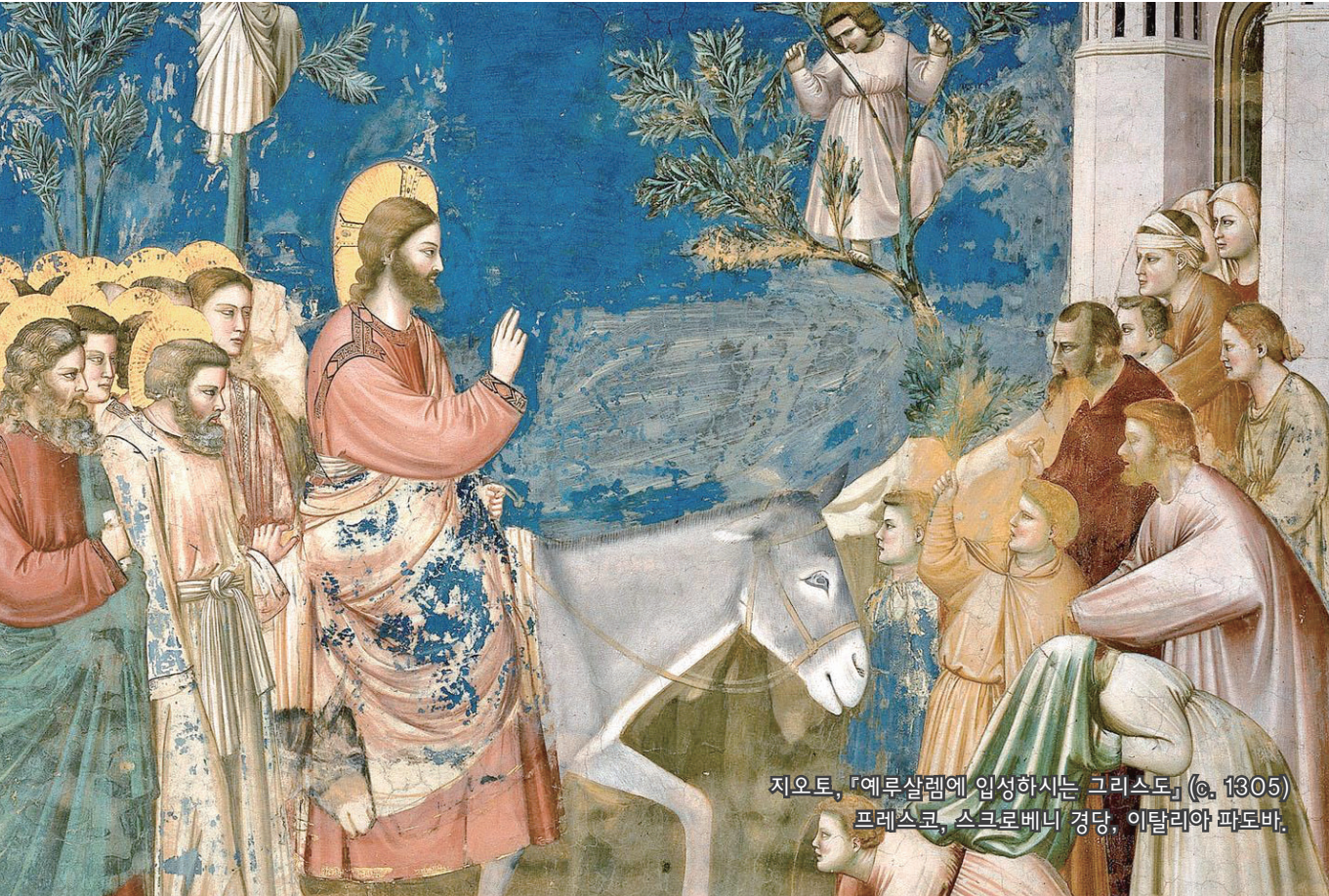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_053)250-3048~9 _http://www.daegujobo.or.kr



지오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리스도』 (c. 1305)
프레스코, 스크로베니 경당, 이탈리아 파도바.

† 오늘의 전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마르 11,9 참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재현하는 행렬을 하고 수난 복음을 듣습니다. 이것은 성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예식이자 고난을 향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의 결의를 주님께 봉헌하는 예식입니다. 승리와 영광을 뜻하는 성지 가지는 십자고상에 장식하는데, 참 영광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드러냅니다.

입당식복음 마르 11,1-10 **제1독서** 이사 50,4-7 **제2독서** 필리 2,6-11 **수난복음** 마르 14,1-15,47

화답송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어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한명석 베드로 신부 | 중방본당 주임

교회는 오늘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을 지냅니다. 인간 구원을 완성할 결정적인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길가에 나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겂옷을 깔아 놓았고, 나뭇가지를 깔아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구원하소서) 하고 환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알고, 믿고, 동의하였기 때문에 환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환호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마음이 바뀌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지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이나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이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께 실망하였고 차라리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미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측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목적이었지만, 그들은 눈앞의 이

익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이 희망이었지만, 그들은 세상에서의 안락함이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그들은 하느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세상에는 늘 죄가 만연합니다.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신학교와 수도원에도 천사와 함께 악마도 있습니다. 신학교나 수도원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인들의 공동체여야 하지만 아직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온갖 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죄 많은 인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1요한 1,10).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이 안고 있는 죄의 근본을 아셨지만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고자 스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신앙인의 표지입니다. 세상은 고통과 눈물의 연속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대한 믿음과 희망은 우리를 다시 사랑 안에 살게 합니다. **필름**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연중캠페인

비폭력의 사랑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신윤경 엘리사벳 | 대구가톨릭여성성직회 원장

‘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때리는 거야.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주위 사람들이 내가 맞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많은 가정폭력 피해 가족들은 사회적 통념에 간혀, 주위의 시선이 두려워, 자녀 걱정... 등등의 이유로 아직도 폭력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세상에는 ‘맞을 짓’이란 없으며, 그 누구도 잘못을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처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어떤 죄인도 폭력으로 다스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적, 반복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일삼아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 수단이 다양화되고 그 정도도 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불신, 적대감이 커지고 가출, 별거, 이혼 등으로 이어져 가정의 해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제노나 정부보다 먼저, 소외되기 쉬운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가톨릭교회 정신의 바탕인 인간존중 의식의 영향에서 발현된 것으로 독립적 인간의 자유의지를 키우게 하면서 인권 존중을 자각하게끔 노력하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폭력을 배우고, 폭력의 재생산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폭력이 학습되어 자기의 잘못과는 아무 상관없는 부모의 폭력적 환경 때문에 끝내 폭력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사람,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자기의 아내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선입관을 갖기 쉽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라보는 제 삼자들은 피해자인 여성과 자녀가 ‘맞을 짓’을 했을 거라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의 이중과가 이러한 데에 있습니다. “남의 일, 집안 일,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나의 일, 사회적 범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로 새롭게 거듭나길 바랍니다. **한글**

가정폭력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을 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곳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대구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053) 253-1401



“‘갑’질하는 신부가 되지 말라.”

박성대 요한 신부 | 2대리구 교구장대리

지난 1월은 참 행복했던 달이었다. 우리 대구대교구에서 부제 서품식과 사제 서품식이 있었고 매일 새 사제들의 첫미사가 있었다. 어느 새 사제의 첫미사 강론에서 아버지 신부가 아들 새 신부에게 “‘갑’질하는 신부가 되지 않았으면”하고 당부를 하였다. 필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필자도 사제로 40년을 살면서 ‘갑’질하는 신부가 아니었나 하는 철퇴였다. 더구나 소공동체 사목을 하면서 ‘갑’질이라니?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을 사제라는 직위를 이용해 했다면 이야말로 복음이 말하는 ‘섬기는 사제’, ‘종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강론을 한 아버지 신부가 너무나 고맙게 여겨졌다. 그 아버지 신부님이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제들의 ‘갑’질을 얼마나 걱정하였으면 아들 신부님의 첫미사 강론에서 그런 당부를 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관피아 문제와 함께 ‘갑’질의 횡포와 병폐가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마저도 ‘갑’질이 문제가 된다면 심각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소공동체 사목을 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른 아닌 ‘갑’질하는 사제가 되지 않으려고 많은 반성과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갑’질을 하면서 소공동체 사목을 할 수는 없다. 비단 소공동체 사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사는 사제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는 사제’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 왔다.”(마태 20,25-28)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강조하셨다. “우리는 자주 은총의 촉진자보다는 은총의 세리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복음의 기쁨 47항) 그리고 또 성 목요일 성유축성 미사에서 또 말씀하셨다. 사제들은 “양 냄새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 또 사제들이 부를 쫓거나 헛된 것을 찾으면 목자가 아니라 늑대가 된다.”(평화신문 2014. 5. 11)

아버지 신부님의 부탁을 들은 그 새 신부님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새 신부님들께도 이 당부를 다시 드리고 싶다. 부디 ‘갑’질하는 신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는 사제’의 삶을 살아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이는 필자의 바람만이 아닐 것이다. 모든 신자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다. **필자**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끝나지 않은 신혼여행

미국 미네소타 주 출신의 간호사 제이나인 헨슨은 생애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고 잘생긴 의사와 결혼해서 신혼여행으로 카리브 해 크루즈를 떠난 것입니다. 게다가 큰 종합병원의 집중치료실에 근무하게 되어 앞날도 창창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허니문 한 중간에 카리브 해의 천국 같아 보이는 섬들에서 그만 발이 묶여 버렸습니다.

그녀와 남편을 붙잡은 것은 사고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었습니다. 변변한 병원이나 약국도 없이, 아프면 앓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원주민들의 삶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이 확 깨는 기분이었어요. 주사기와 항생제만 좀 들고 와도 죽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신랑과

신부는 그 자리에서 크루즈를 그만두고 원주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국제 카디오

스타트 기구’는 세계 곳곳의 벽지에 장비와 의료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미의 오지로, 몽골의 초원으로..., 신혼부부는 10년째 신혼여행 중입니다.



어린이 환자를 돌보는 헨슨 씨

금주의 성인

3월 29일	성녀 글래디스(은수자, 뉴포트, 6세기경), 복녀 디에모다(동정녀, 베소브룬, 1130년경) 성 루돌포(주교, 라체부르크, 1250년경), 성 바로키시오(수도승, 순교자, 327년) 성 요나(수도승, 순교자, 327년), 성 파스토르(순교자, 311년)
3월 30일	복자 도도(은수자, 아슈, 1231년), 성 베드로 레갈라토(신부, 증거자, 462년경) 복자 아마데오 9세(왕, 사보이아, 462년경), 성 요한 클리마코(수도원장, 시나이산, 605년경) 성 조시모(주교, 시라쿠사, 660년경), 성 파스토로(주교, 오를레앙, 6세기)
3월 31일	성녀 발비나(동정순교자, 로마, 2세기경), 성 벤자민(부제, 순교자, 421년경) 성 아카치오(주교, 순교자, 3세기), 성 알도(증거자, 수도원장, 하스논, 8세기말경)
4월 1일	성 마카리오(증거자, 수도원장, 콘스탄티노플, 830년경), 성 발레리코(수도원장, 퇴콘, 620년경) 성녀 테오도라(순교자, 로마, 132년), 성 후고(주교, 그로노블, 1052~1132년)
4월 2일	성 니체시오(주교, 리옹, 573년), 성녀 마리아(은수자, 이집트, 500년경) 성 아피아노(순교자, 리키아, 306년경), 성녀 테오도시아(동정순교자, 티레, 306년경) 성 프란치스코(은수자, 설립자, 파올라, 1416~1507년)
4월 3일	성 리카르도(주교, 치체스터, 1197~1253년), 성녀 키오니아 (동정순교자, 304년) 성 판크라시오(베드로의 제자, 주교, 순교자, 타오르미나, 90년경)
4월 4일	성 베네딕토 무어(수사, 1526~1589년), 성 아가토포(부제, 순교자, 303년) 성 이시도로(주교, 교회학자, 세비야, 560~636년), 성 테오도로(독서자, 순교자, 303년) 성 플라토(수도원장, 사쿠디온, 813년), 성 힐데베르트(증거자, 수도원장, 겐트 752년)

■ 한국 천주교 주교단 사도좌 정기방문(Ad limina) 교황청 가정평의회 방문



교구장 조한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3월 16일(월) 오후 12시 교황청 가정평의회 의장 빈첸초 팔리아 대주교를 예방하시고 가정사목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셨다.

사진제공 : 가톨릭신문

■ 남대영 기념관 축복식



대주교님께서는 3월 23일(월) 오후 2시 대명동 예수성심시녀회 내에 위치한 남대영 기념관 축복식을 거행하셨다.

사진제공 : 월간 <빛>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 13주간, 2015. 3. 29. ~ 4. 4. >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2열왕5-8장	9-11장	12-15장	16-19장	20-22장	23-25장	1역대1-5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 남은 자(Anavim)

구약 성경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이다.

① 말 그대로 외적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가리킨다. (2열왕 19,4;25,11)

② 노아 이야기에서처럼 재앙을 하느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를 구원의 표지로 본다. 이러한 신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행이나 신앙에 의해 남은 자로 선택되기 보다는 온전히 하느님의 자비, 열정, 용서, 은총처럼 그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다.(2열왕 19,31 참조) 따라서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남은 가난한 사람(2열왕 24,14)들은 하느님의 약속이 구현되는 사람으로서 희망에 대한 표징의 역할을 맡는다.

➔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해서 행복한 사람(마태 5,3)이 곧 '남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여가와 취미활동 못지않게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4월 4일(토) 11:00
프란치스카눔 경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4월 4일(토) 11:00 대안성당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의료봉사수도회 성소모임

일시: 4.18(토) 14:00~17: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대상: 의료봉사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문의: (010)3800-1579

렉시오디비나와 함께하는

2차 신약성경 통독피정

기간: 4.25(토) 13:30~26(일) 17:0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5만 원

신청: 4.12(일)까지, cafe.daum.net/biap

주관: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입금: 대구 508-11-836412-0(한상숙)

수도자들과 함께 하는 부활(성3일) 전례피정

기간: 4.2(목) 16:00~5(일) 13:3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19만 원/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 수도원, 입금후 연락바람

문의: (054)971-0722 / (010)3567-6083

베네딕도 수녀회 성삼일 전례 피정

기간: 4.2(목) 17:00~5(일) 14:0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피정비: 14만 원, 문의: 313-3425

성삼일 전례피정 초대

기간: 4.3(금) 20:00~5(일) 10:00

대상: 미혼 여성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신청: (010)2649-2045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4.11(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상지의 옥좌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교육 | 모집

가톨릭마라톤 남녀회원 수시 모집

‘달려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대상: 20세이상 관심있는 신,예비자

지도신부: 임종욱(바오로)

문의: 회장 김순필, (010)3803-3502

참조: <http://www.dgcamara.com>

대학생 필리핀 영어연수 및 해외봉사

기간: 1차 6.28 / 2차 8.29(8주)

특징: 영어연수, 해외봉사 인증서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기타: 청소년영어캠프 4주 모집중

문의: 593-1273, 대구청소년수련원

새빛학교 ABC영어, 한문반 모집

ABC영어: 매주 화,목 (주2회) 13:00

기초한문: 매주 화 (주1회) 15:00

교무실: 476-3100(1호선 교대역)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통기타, 플룻, 우쿨렐레, 바이올린,

오카리나, 가야금, POP, 초코아트,
틀페인팅, 백세건강, EBS주산수리샘
문의: 476-6211(지하철1호선 교대역)

한중친선협회 회원 모집

한중친선협회에서는 중국어 신약성경
읽기반과 중국어 공부에 관심있는
교우를 연중 모집합니다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강의동 103호

문의: 진시형 요셉, (010)4931-0996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문의: (070)4266-0047

꽃동네 성령 축제

일시: 5.3(일) 9:00~18:00

특별강사: 세니(세계성령봉사회이사)

가정성화피정 전문, 말씀 및 예언의 은사

치유미사: 꽃동네 오웅진 신부

문의: (010)5490-5345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기간: 5.30(토)~6.10(수) 11박 12일

장소: 이스라엘, 이탈리아

금액: 425만 원 / www.cttour.org

문의: (02)2281-9070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펜션예약가능

문의: 제주운전기사사도회, (010)4566-6476

대형주차장 완비 / 여성전용입원실

체코하어로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 959-7175

대구그리다스튜디오

설레이므로 다가와
추억을 그리다!

가족촬영 | 우정촬영 | 리마인드촬영 | 웨딩전문촬영
드레스대여 | 텍시도대여 | 메이킹 | 헤어디자인

김 대 현 (프란치스코)
☎ 053)424-7777 | 010-2112-8236

상위 1%의 꿈, 학습무기를 준비하라!
UP 학습코칭

· 공부방법 특강 · 분석독서코칭(비,문학)
· 시험코칭 · 다중지능/적성검사/상담

윤 종 선 (가필로)
☎ 053)752-0966 범어동 KBS앞
NAVER 대구UP학습코칭 검색

구스다운/커버 이불 / 침구류
국내/국제특허 성당방석 / 단체세탁품

CARITAS
HAN KWANG 안젤라 권순화
한광 010-9357-9988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서울 사무실 홍대 앞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입시 · 취업 면접, 화술 · 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킴 교육 검색 김민지(사바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전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NAVER 메디펫동물병원 검색
각종 수술 전문 중증 노령견 전문
메디펫동물병원
원장 임 대 진 (미카엘)
병원 761-8875 TBC 맞은편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故)서영민(알렉산델) 신부님

선종 1주기 미사

일시: 4.1(수) 10:00

장소: 군위묘원

3월 29일 일요일은

(故)전달출(토마스테아퀴노) 신부님

선종 5주기입니다.

4월 2일 목요일은

(故)황주철(로제리오) 신부님

선종 2주기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바자회

품목: 생필품, 특산품, 먹거리,주류등

문의: 통합의료연구센터,

650-3433

교육 | 모집

30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기간: 4.11~5.17(매주 토, 5주간)

※5.2(토) 한주 쉽다 / 5주차 가족피정(1박)

장소: 1대리구 산격성당 / 15만 원

대상: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주관: 교구 가정담당, 250-3114

성당 건축 양식과 전례 테마 순례

기간: 6.23(화)~7.5(일) 12박 13일

장소: 이태리,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 경비: 약 480만 원

인솔: 최창덕(F.하비에르)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4~6

통합의료 임상연구 참여자 모집

대상: 암(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등)

당뇨, 기능성 소화불량 등

치료방법: 양방+한방의 통합치료

결식아동돕기 7080밥밴드 연주자 모집

분야: 키보드(피아노)

문의: (010)9577-7819 / (010)3810-5599

채용 | 안내

가톨릭푸터, 미혼모시설 간호사 채용

자격: 간호사 / 간호조무사(산부인과

근무경력자 / 만35세~45세)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마감: 4.24(목), 문의: 764-8537

접수: gglade@hanmail.net

파티마홀(요양원)입주어르신 및 직원 채용

입주대상: 장기요양등급(1~4급)받은 어르신

채용: 간호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문의: 324-1186-8 / (010)9437-7500

2015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판매가 : 3,000원 / 110쪽

구입: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6~9

행사 | 모임

제4회 교구장기 게이트볼대회

일시: 5.12(화) 9:00 개회식

장소: 성서 실내게이트볼 구장

신청마감: 4.14(화)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7

사순시기 김기창 화백의

‘예수님의 생애展’(관화 30점)

기간: 2.18(수)~4.4(토)

시간: 10:00~18:00(월요일은 쉽다)

장소: 사동성당 강당(경산)

문의: 허두환(시메온), (010)3588-5252

복자성당 사랑 나눔 큰 잔치

기간: 5.30(토) 11:00~31(일) 17:00

내용: 본당설립 50주년 기념, 50주

년(2020년) 준비 및 지역 복음화와

대구평화방송(FM 93.1)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대구대교구 원로 사목자와 원로 수도자의 삶을 나누는 휴먼 다큐 ‘임파라 사랑파라’ (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 ~ 12시

(주파수 안내: 포항 96.9MHz, 안동 100.7MHz, 김천 100.5MHz)

4월 4일(토), 11일(토)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정희숙(데레사) 수녀
4월 18(토), 25일(토)	투스피교성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김순복(베다) 수녀

※ 특집 프로그램은 수술 전문 대구안과의원 후원입니다.

엠마우스를 성지와 함께

● 이스라엘, 요르단 ● 일본(유후인, 오미야, 다케타)

12박 13일 3박 4일

- 4/14 출발 확정 - 4/21 출발 확정

대한항공 대한항공

T. (053)253-3399

☀ (주)성지여행 조철레(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심 / 어귀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의/원장 이준석(이냐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참소중한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경일신경과·내과

- 치매 / 뇌졸중 조기검진
예약상담 053) 268-2525
- MRI 예약상담 053) 262-2525
- 위/대장 내시경, 성인병 종합검진

대표전화 053)652-2525 www.kinn.co.kr

2호선 내당역 2번 출구 (홀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백두정형외과

SINCE 1975 http://baekduos.com

아개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성근 베드로
신생아 세부전문의 배상영 미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0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이전진료

진료과목: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신경과
위·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카) · 원장 서영익(미카엘)

경북대 치과병원과 삼덕네거리 사이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1번출구 앞 2층(사대부고 맞은편)

☎ 053)255-3134